

< 미국출장결과 보고 >

출장명 : 미국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3」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1. 출장 목적

- 미국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3」 참석 및 과수산지 방문
 - 미국 농업전망 참석 및 행사관련 자료수집
 - 오렌지 등 과일산지 및 유통실태 파악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기간: 2013. 2. 18(월)~23(토)(4박 6일)
- 출 장 자: 이용선 연구위원, 신유선 초청연구원
- 방문지역: 미국 Virginia주 Arlington(Washington D.C.),
California주 Bakersfield

일자	장소	활동 내용
18일(월)	인천→LA	출국
19일(화)	LA 인근(베커스필드)	오렌지 패킹하우스 및 유통업체 방문
20일(수)	LA→워싱턴시	유통매장 견학 및 항공 이동
21일(목)	워싱턴시	미국농업전망 참석
22일(금)~23일(토)	워싱턴→인천	귀국

3. 주요 조사내용

- 농업전망대회 참석자 자료 수집 및 각종 행사장 사진촬영
- 농업전망대회 행사진행 견학 및 각종 설치물, 유관기관 부스 등 견학 및 벤치마킹 방안 검토
- 2013년 미국 농업경제 전망 : 식품가격과 농가소득, 주요 품목 전망, 로컬 푸드 및 식품 안전 등
- 오렌지 등 과일산지 및 유통실태 파악

4. 출장 결과

오렌지 산지 및 유통업체 방문

1) JOHNSTON Farms

○ 주요 면담자 및 연락처

- JOHNSTON Farms (P.O. Box 65 Edison, CA 93220)
- 면담자: Derek Vaughn
- 연락처: 661-366-3201, Derek.bluejay@gmail.com

○ 주요 면담내용

- Johnston Farms은 만다린, 네이블 오렌지, 자몽, 감자, 피망 등을 취급하는 프리미엄 도매업체로 1963년에 네이블 오렌지를 처음으로 1970년대 초에 만다린, 1980년에 자몽, 1986년에 피망을 추가하여 재배하고 있음. 매년 11~익년 4월에 프리미엄 감귤류(citrus) 1백만 carton 이상을 포장함.
- Blue jay와 Victor 두 개 브랜드가 있는데, Victor가 좀 더 저렴한 편임.
- Edison에 있는 세 개의 팩킹하우스로부터 미국, 캐나다,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대륙의 소매상에게 유통시키고 있음. 또한 1986년부터는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시킬 수 있는 감귤류 선물용 포장도 시작하였음.
- 과일과 채소류의 최고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배농법을 개선시키고 있음. 산업표준을 초과하는 재배농법을 적용하고, 15년간 USDA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토양관리에도 신경쓰고 있으며, 모든 판지·플라스틱·팔레트·상자 등은 재활용하고 있음. 경작지를 관리하는 토양관리자가 별도로 있으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방제를 하는 통합 해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염류축적을 최소화하고 물 공급을 위한 관개시설도 갖추고 있음.

<JOHNSTON Farms>



2) Moo Gung International, INC.

○ 주요 면담자 및 연락처

- Moo Gung Int'l, Inc. (101 S. Mission Road, Los Angeles, CA 90033)
- 면담자: 정혜숙(Cecilia Chung) 사장, 신건진(Paul Shin) 이사
- 연락처: 323-261-9100, kj_shin@hotmail.com

○ 주요 면담내용

- 연혁

- 1985년 Door To Door Sales로 Produce 시작
- 1994년 대형마켓체인에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하며 본격적인 Wholesale 시작
- 1996년 LA Produce Wholesaler Market 근처에 건평 11,000Sqft의 창고 구입
- 2003년 미 전역으로 판매망을 본격적으로 확장
- 2005년 60,000Sqft 창고 건물을 확보하여 확장이전, LA·뉴욕·조지아·텍사스·시카고·시애틀·하와이·유타·알래스카 등 미 전역에 200여 개가 넘는 고객에게 물량을 공급함.
- 2009년 히스패닉, 중동 마켓 등 주류시장에 본격적으로 상품 공급 시작
- 2013년 130,000Sqft/4.4acre(약 5,000평)의 신사옥 이전 예정

- 주요 취급품목

- 과일: 황금싸라기 참외, 하미 멜론, 사과, 귤, 포도, 단감, 복숭아, 자두, 딸기 등
- 야채: 배추, 무, 총각무, 풋배추, 열무, 파, 시금치, 상추, 브로컬리, 양배추, 양상추, 버섯, All Herb 등
- 한국산 농산물: 배, 밤, 버섯, 포도, 감, 감귤, 사과, 무, 파프리카 등

- 기타

2007년 이후 연 20% 이상의 지속적인 매출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1,500acre(약 18만평)가 넘는 멕시코, 인디오, 베이커스필드, 프레즈노에서 황금싸라기참외·하미멜론·배추·무 등을 연중 공급하는 미주 최대의 한인농장인 JH Farm과는 형제관계임. 그 외 자회사인 Moriah Trading에서 수출입과 농산물 부자재 및 건강식품을 취급함.

<M.G. Produce>



3) MCL Fresh, INC.

○ 주요 면담자 및 연락처

- MCL Fresh, INC. (5555 E.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22)
- 면담자: Norwin Wong
- 연락처: 323-201-5800, norwinw@mclfresh.com

○ 주요 면담내용

- 1993년에 설립된 MCL Fresh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과일과 채소류 포장 및 유통 전문업체임. 근무 직원은 약 350명으로 20개 부서가 있음. 일주일 총 처리 물량은 2천만 carton임.
- Realsun과 Real Organics 두 개의 브랜드가 있음. realsun은 프리미엄 감귤류(citrus)를 주로 다루며, real organics은 유기농 제품을 취급함.
- HACCP를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GAI 인증도 있음. 또한 MCL 창고에서 나온 모든 농산물에 대해 추적이력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농산물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가 이 업체의 강점인 것으로 보임.

MCL Fresh, Inc.>



4) 농협미국사무소

○ 주요 면담자 및 연락처

- 농협미국사무소 (17785 Center Court Drive Suite 360, Cerritos, CA 90703)
- 면담자: 박형중 소장, 신재근 차장
- 연락처: 562-677-3706, zegni@nonghyup.com

○ 주요 면담내용

-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뉴욕에서 L.A.로 이전하였음. 국내에서 과잉 생산된 과일 물량을 가공하여 미국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 2011년 한국산 사과가 55톤 들어왔지만 미국 현지 사과 품질이 매우 좋아 한국산에 대한 반응이 신통치 못했음.
- 2012년 한국산 감귤은 반응이 매우 좋았고, 앞으로 감귤은 농협무역을 통해서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물량과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동안 배 품목이 대미 수출의 주력상품이었는데, 최근 중국산 배가 개방되면서 현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미국에서 중국산배 가격은 한국산의 50~60% 수준에 불과함.
- 가공식품은 회사별로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원재료가 중국산임.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농협유사상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가 강하지 않아 근절되지 않고 있음.

<농협미국사무소>



5) 유통매장 견학: Farmers Market, Mother's Market, 한남체인

- 유통매장으로 Farmers Market, 친환경농산물전문점인 Mother's Market, 교포마켓 한남체인을 방문하여 주요 과종별 가격과 품질 등을 살펴봄.
 - 후지 사과는 타 사과품종과 가격차가 별로 나지 않았음.
 - 만다린계통 시트러스 품종이 과거보다 증가하였음.
 - 천연건강식품에 대한 판매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함.

<Farmers Market>



<Mother's Market>



<한남체인>



미국 2013 농업전망 참석: *Food Price & Farm Income Outlooks* 분과

1) 2013 전망대회 개요

매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행사로 2월 21~22일간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됨. 올해 대주제는 “Managing Risk in the 21st Century” 이었다. 첫 세션인 전체 세션에서는 미국 농무부 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우선 Glauber 농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2013년 및 중장기 농업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이 기상 변화, 소득 변동, 식품 불안전성 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청중들과 활발한 질의, 응답을 벌였다.

두 번째 세션은 “Managing Risk in Today’s Markets” 라는 소주제에 대해 세 명의 패널 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음. 패널로 CME 그룹 COO, 카길 회장, 일리노이대 Irwin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 주제에서 특히 관심이 되었던 것은 투기자(speculator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였다. 투기자의 기능이 아직 명확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밝혀지지지는 않았지만 언론의 부정적인 견해에 비해 학계에서는 부정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분석결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3>



2) 주요 전망내용

농장소득

2013년 미국의 농장순소득은 기록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가뭄으로 다수의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작물보험금이 지불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3년 농장순소득이 1천 282억 달러, 현금 순수입은 1천 23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장순소득은 2013~15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1~10년 평균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식량 수요 증대, 달러 약세, 바이오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는 2015년 이후 현금수입이 증가하는 주요인이 된다. 정부의 직접지불액이 감소하고 농장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2015년 이후 대부분의 현금수입과 기타 농장 소득원에서의 증가 부분을 상쇄시킨다.

정부의 직접지불액

농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지불액은 2013년 109억 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평균 97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 정부의 향후 10년간 직접지불액은 2000~10년간 평균 16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직접지불 프로그램은 보전직접지불(Conservation Payments), 고정직접지불, 작물수입직불(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의 높은 농산물 가격이 향후 하락함에 따라 작물수입직불금(ACRE)이 2015년에 18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전망기간동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불액은 보전유보정책(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과 고정직접지불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작물 가격은 경지를 보다 가치있게 하고, 이에 따라 보전유보정책(CRP)에서 토지 임대료는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보전유보 목적의 직접지불금은 2013년 약 20억 달러에서 2022년 2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직접지불금은 연간 약 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높은 수준이었던 식료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작물수입직불(ACRE) 지불금은 1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작물수입직불프로그램 등록과 장기적으로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2016~22년에 작물수입직불금은 연 평균 4천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부문 소득에서 정부의 직접지불제 역할은 작아졌다. 2005년 총현금소득의 8%를 상회하던 직접지불금은 장기적으로 2~3%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농업부문 소득은 시장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농장 생산비

미국 농장의 총생산비용은 2013년에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4~15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작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사료비와 작부면적이 감소할 것이며, 단기 석유가격이 하락하여 투입재 비용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장 생산비는 2015년 이후 2022년까지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 비용과 일부 에너지관련 비용은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지만, 농업관련 투입재 비용에서 특히 사료와 가축 비용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비농업관련 비용은 물가 상승률에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이자 비용은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낮았던 이자율이 오르고 부채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5년 이후 연료광열비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4~15년에 작부면적 감소는 초기에 비료비를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장기적으로 이들 비용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품 교역

미국의 농산품 수출액은 2013년에 증가한 이후 2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농작물 가격이 현재의 높은 수준에서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이후 농산품 수출은 지속적인 세계 경제 성장, 농산물 수요 증대,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국내 경제성장은 농산품 수입에 대한 수요를 신장시킨다(정부회계연도는 10월 1일에서 익년 9월 30일까지이며, 두 번째 연도의 이름을 따라 회계연도가 명명된다).

2013년 미국의 농산품 수출액은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1천 4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5년에 수많은 작물 가격은 떨어지고 수출액은 감소하며, 2016년 이후 농산품 수출액은 2013년 수출액을 초과하여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성장과 특히 개발도상국의 높은 성장은 세계적인 식량 수요, 무역, 미국 농업 수출 증대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세계적인 바이오 연료에 대한 꾸준한 수요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수출액 증가에 기여한다. 게다가 지속적인 미국 달러 약세는 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주요인이다.

미국 농산품 수출에서 고가품(High-Value Products; HVP)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망기간이 끝나는 2022년경에는 이 비중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 농산품 수출은 주로 축산품과 원예농산품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2022년 약 1천 6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 소비자의 소득과 다양한 식료품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원예농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농산물 수입액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농업무역수지는 2011년 약 430억 달러의 기록적 흑자를 기록한 후 수년 동안 계속 감소하여 2015년에는 150억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무역수지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평균 약 17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물가

2006~12년에 미국의 식품소매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률)을 웃돌았는데, 이는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3년 식품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2012년 미국의 가뭄 영향에 기인한다. 소매가격에 변화를 주는 식료품 가격은 7개월간 지속되기 때문에 2012년 가뭄으로 인한 영향은 2013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가뭄은 생산을 감소시키고 옥수수과 콩 가격을 상승시켰는데, 이는 사료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육류 소매가격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물가는 시리얼 및 빵류 등 곡물가공품과 같은 식품 카테고리에서 평균을 상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소비자 식료품 가격은 평균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해 덜 상승할 것이다. 축산물 생산이 증대되어 1인당 육류 소비의 증가와 육류 소매가격 상승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식소매가격은 대체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미국 경기가 반등을 계속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외식용 식료품 소비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와 요식업체의 경쟁은 외식 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외식용 식품 지출은 가정내 식품 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식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